"선거 때 안 도왔다" 직원 내쫓은 조합장

화순농협, 3급 5명 등 7명 타 조합 전출

농협과 수협 등 조합장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온 '불·탈법' '당선 후 인사 전횡'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농협직원들은 선거 후 '선거 관련 보복성 인사'로 인해 신분·처우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화순농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자 인사에서 3급(팀장·상무) 5명, 4·5급 2명 등 7명을 타 조합의 직원들과 교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화순농협 이형권 조합장이 취임한 뒤 이뤄졌으며, 전체 직원 70여명에게 일괄 교류 인사동의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들만 별개 법인인 타 조합으로 보내졌다.

이들이 배치된 조합은 급여, 직위 등 근로 조건에서 현 조합에 비해 처우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화순농협은 농협중앙회의 '2010년도 조합인사 운용지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간부직원 직급별 운용기준과 경영여건이 유사한 조합별 천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간부 직원은 해당조합에 직급이 없어 현재까지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인사교류 대상자에 대한 인사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사대상자들은 "뚜렷한 대상자 선별기준, 원칙없이 진행된 인사는 선거기간 현 조합장을 지지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지킨 자신들을 타 조합으로 전출시키기 위한 조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 직원들도 "이번 인사대상자 대부분이 선거에서 현 조합장은 물론 타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이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인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농협 이형권 조합장은 "이번 인사에는 선거를 적극 도와준 사람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인사와 선거를 연관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며 "인사 교류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인사를 실시했으며, 농협간 급여 등 경영여건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류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어느 누구도 교류인사를 원치않아 인사를 할 수 없어 직원들에게 교류 인사동의서를 받았을 뿐이다"며 "중앙회의 인사 운용지도지침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준수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 선거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1일 집계결과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60곳의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 중 48곳의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고발 1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8건 등 총 2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불·탈법 선거가 되풀이 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등산 덕산샘·돌샘 약수 '부적합'

광주 14.9%·전남 3.4% 사용 중지

전국 약수터, 우물, 샘터 22.8%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14.9%, 전남은 3.4%가 수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용 중지 또는 금지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2009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등이었고 전체 시료 수는 9천156건이었다.

전체 시설 1천912곳 중 수원 고갈, 시설 정비 등으로 검사할 수 없는 338곳을 제외하고 시료가 채취됐으며 1, 2, 4분기에는 1회씩, 여름철이 포함된 3분기에는 매달 검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 14.9%를 비롯해 서울 36.3%, 대구 34.3% 등 대도시 지역의 약수터 물이 마시는 데 부적합했으며 전남(3.4%), 경북(6.5%), 경남(7.4%) 등의 부적합률은 대체로 낮았다.

광주시는 분기별로 광주지역 약수터 16곳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무등산 덕산샘, 돌샘 등 약수터 2곳이 마시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먹는물 기준을 벗어난 2천92건(22.8%) 중 97.9%에 해당하는 2천48건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했다.

질산성 질소 등 건강상 유해물질 항목의 부적합 비율은 0.6%, 탁도나 알루미늄 등 심미적 영향 물질 항목의 기준 초과 비율은 1.5%였다.

수질이 악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환경부는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을 꼽았다.

여름철에는 장마철 빗물 유입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이 심해져 29.3%가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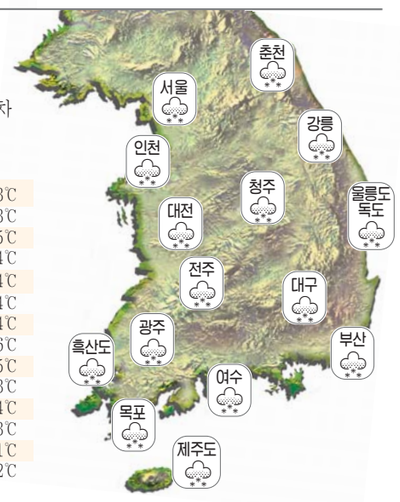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1분 해짐 18시 35분 / 달뜸 03시 30분 달짐 13시 30분

빙판길 조심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점차 개겠다.

광 주	흐리고 눈	-2/3℃
목 포	흐리고 눈	-1/3℃
여 수	흐리고 한때 눈	-1/5℃
완 도	흐리고 눈	-1/4℃
구 례	흐리고 눈	-2/4℃
해 남	흐리고 눈	-2/4℃
장 흥	흐리고 눈	-2/4℃
고 흥	흐리고 한때 눈	-1/6℃
순 천	흐리고 한때 눈	-1/5℃
영 광	흐리고 눈	-2/3℃
진 도	흐리고 눈	-1/4℃
전 주	흐리고 눈	-2/3℃
남 원	흐리고 눈	-3/1℃
흑산도	흐리고 눈	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5.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5.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5.0m

	밀물	썰물
목포	10:51 22:48	03:21 16:45
여수	06:33 18:22	12:42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날 씨						
최저/최고	-2/9	4/15	6/16	6/15	8/12	6/8

8cm 눈… 꽃샘추위 12일부터 풀려

10일 광주·전남은 오전까지 눈이 내리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10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최고 8cm의 눈이 내린 뒤 점차 그치겠으며, 최저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겠다"고 9일 예보했다.

10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전날보다 다소 낮겠다. 이번 꽃샘추위는 11일까지 이어진 뒤 12일부터 평년기온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든 해상에 강풍 및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10일에도 전해상에서 2~5m로 높은 물결이 일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초등학생 진단평가 전국 초·중학생을 상대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실시된 9일 오전 광주 서석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폭력 1588-7179로"

〈친한친구〉

광주시교육청, 연중무휴 신고 접수·상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 '1588-7179(친한친구)'를 개통했다.

이 전화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평일에는 지역교육청의 '위(Wee)'센터, 야간과 주말에는 시교육청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의 전화로 착신 전환되는 등 언제 어디서든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련 신고 접수와 상담, 처리 절차 안내, 일반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동안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이번 긴급전화의 개통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기 위해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위(Wee)스쿨'을 비롯한 용연학교, 위센터(3곳), 각 급학교 위 클래스(52곳), 단기대안교육시설인 금란교실 등을 운영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학사 매관매직' 고교 교장 2명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면서 '장학사 매직 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고등학교 교장 김모(60)씨와 장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 국장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임모(50·구속기소) 장학사와 짜고 일선 교사들이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챙긴 돈이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건네졌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들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으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수사가 한창이며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국선언 충북 전교조 간부

3명에 유죄 선고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51)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39)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45)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에 5번째로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지난달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하태헌 판사는 이날 법정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노조법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